



제07-28호

세계경제 동향 및 전망 총괄(2007년 1분기)

이인구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 부연구위원 (iklee@kiep.go.kr, Tel: 3460-1153)

주요 내용

- ▣ 미국경제는 2007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1.3%(전기대비 연율)를 기록함으로써 경기 저점을 통과한 것으로 평가되며 2분기 이후부터는 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 1분기 일본경제는 수출 및 개인소비 등의 호조세에 힘입어 전기대비 0.6% 성장함으로써 9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시현함. 또한 중국경제는 금리와 지급준비율 인상, 투자 억제, 부동산시장 안정화조치 등 거시경제 안정화조치에도 불구하고 11.1%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함. 한편 1분기 EU경제는 전기대비 0.6% 성장함으로써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 2007년 외환시장은 달러화가 주요국 화폐에 대해서 약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엔화에 대해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음. 일본이 하반기에 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의 환율 변동폭 확대 및 추가 긴축정책의 영향으로 이들 통화의 평가절상 움직임이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세계 주요국의 주가가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경제의 성장 전망, 중국의 추가 긴축정책, 일본의 금리인상에 따른 엔케리 트레이드 둔화 여부 등이 향후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을 결정할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 아울러 2007년 통상환경을 살펴보면, DDA의 경우 낙관적 전망과 비관적 전망이 함께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6월 중순부터 한 달 간 DDA 연내 종결을 가늠할 수 있는 최대의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됨. FTA의 경우 현재에도 다수가 협상이 진행 중이거나 공동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2007년에도 활발한 FTA 추진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미국

- 미국경제는 2007년 1분기 성장률이 1.3%(전기대비 연율, 속보치)를 기록하여 2003년 1분기 이후 가장 저조한 성장을 기록하였음.
 - 1분기 미국경제는 견조한 소비세 지속 및 기업 설비투자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약화 심화와 고용 증가 추세의 점진적 약화로 인해 부진한 성장률을 보임.
 - 1분기 중 전반적인 물가 오름세는 전년동기에 비해 소비자물가 및 생산자물가의 상승세가 둔화된 반면 근원 인플레이션의 상승폭은 확대되었음.
- 지난해 미국경제 둔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주택가격 하락은 최근 일시적으로 진정되는 국면을 보이고 있으나 주택부문의 소비 및 성장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은 2007년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기존 주택판매 중간가격(median price)은 2006년 7월 230,200달러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점차 하락하여 2007년 1월에는 210,900달러를 기록하였으나, 그 후 석 달 연속 상승하여 2007년 4월에는 220,900달러를 기록함.
- 2007년 미국경제는 1분기에 경기 저점을 통과한 것으로 추정되며, 2분기부터는 설비투자 확대 및 수출호조에 따라 점진적인 성장세 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 2007년 2분기 성장률은 2.2%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2007년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은 2.1~2.3%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2007년 미국의 무역적자는 세계경제의 견조한 성장과 달러화 약세에 의한 수출부문의 호조, 미국경제 성장률 하락에 따른 수입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2006년의 8,360억 달러 규모(GDP의 6.3%)에서 약 7,910억 달러(GDP의 5.7%)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일본

- 일본경제는 2002년 이후 장기간 경기회복 국면에 있으며, 이미 버블시기의 호황 국면(51개월)과 전후 최장의 호황기였던 이자나기 경기(57개월)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재 경기회복 국면의 지속 여부와 함께 촉진 및 제약 요인, 거시경제정책적 대응 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지난 5월 17일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GDP 통계속보(1차 속보치)에 따르면, 2007년 1/4분기(1~3월) 실질 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0.6%(연율 환산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9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보였음.
- 주로 수출(전기대비 3.3% 증가) 및 개인소비(동 0.9% 증가) 확대가 성장세를 견인하였음.
- 소비지출 디플레이터가 전년동기대비 -0.3%에서 -0.7%로 하락폭이 확대된 반면, 자재가격 상승 등을 배경으로 설비투자(+0.3% → +0.7%) 및 주택투자(+2.2% → +2.3%) 디플레이터의 상승폭이 확대되어 국내수요 디플레이터는 전년동기대비 0.0%를 기록함.
- 최근 일본 내각부 산하의 경제기획협회가 발표한 「ESP(Economy Society Policy) 예측조사」(2007. 5. 11)에 따르면, 2007년 2/4분기 일본의 실질 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연율 기준으로 1.52%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경기 감속 전망은 ① 미국경제의 감속 경향(2006년 4/4분기 +2.5% → 2007년 1/4분기 +1.3%)에 따른 수출 증가세 둔화 가능성 ② 설비투자의 경기전인력 약화(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기계수주의 하락 전망(전기대비 -11.8%)) 및 IT제품의 재고조정 지속 ③ 1/4분기 레저소비 확대 요인(계절적 요인) 소멸 및 고용자보수 저하에 따른 개인소비 둔화 예상 등의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일본경제는 상당 정도의 충격흡수력을 갖고 있어 미국경제가 경착륙하지 않는 한 2007년도 전체적으로는 2% 정도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하반기 이후 미국경제가 회복되면서 수출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의 생산 및 설비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보임.

중국

- 2007년 1분기 중국경제가 금리와 지급준비율 인상, 투자 억제, 부동산시장 안정화조치 등 거시경제 안정화조치에도 불구하고 11.1% 성장하면서 경기과열 우려가 증폭됨.
- 2006년 3/4분기 이후 경기 안정화조치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던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4월에는 반등세로 전환됨.
- 국내소비는 자동차, 통신기기, 석유제품 소비 확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4.9% 증가한 데 이어, 4월에도 15.5% 증가하는 등 소비 호조세가 지속됨.
- 1분기 중 수출은 선진국 경기 호조, 전기전자 제품의 경쟁력 향상으로 전년 동기대비 27.8% 증가한 반면, 수입은 18.2% 증가한 데 그쳐 무역흑자 규모는 전년대비 99.4% 증가한 464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중국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금리인상(2회), 지급준비율 인상(5회) 등 일련의 금융조치를 통해 경기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음.
- 중국경제는 하반기 중에도 추가적인 긴축조치가 불가피하나, 금년 가을의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등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실물경제를 위축시킬 정도의 강력한 긴축정책은 취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중국정부의 지급준비율과 금리인상 등 긴축조치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중에는 10% 후반대 성장세가 지속되고, 하반기에도 2008년 8월에 개최되는 북경올림픽에 대비한 인프라 투자와 소비 확대로 높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2007년 경제성장률은 2006년의 10.7%에 비해 소폭 하락할 것이나 10% 이상의 높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미국을 비롯한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국으로부터의 통상압력 증대, 위안화의 추가적인 절상, 중국정부의 수출에 대한 우대 축소 등으로 2007년 중국의 수출증가율은 2006년에 비해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EU

- 2007년 1/4분기 EU27 경제는 전기대비 0.6%, 전년동기대비 3.2% 성장함.
- EU27 경제는 2006년 4/4분기에는 전기대비 0.9%, 전년동기대비 3.5% 성장이라는 높은 성장세를 보이면서 2006년 전체적으로는 분기별 성장률(전기대비)이 0.7~1.0%를 기록하였으나, 2007년 1/4분기에는 독일의 성장세가 주춤하면서 EU27 성장률이 다소 떨어짐.
- 2006년 분기별 성장률이 전기대비 0.8~1.2%를 기록하여 뚜렷한 회복세를 보인 독일 경제는 2007년 1/4분기에는 전기대비 0.5%로 성장속도가 낮아졌지만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3.6%를 기록하고 있어 여전히 경기확장세를 보이고 있음.
- EU의 기존 회원국 가운데 가장 호조를 보였던 국가들 중 하나인 스페인과 영국의 경우, 1/4 분기에도 성장률이 각각 1.0%, 0.7%를 기록하면서 경기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
- 활발한 고정투자와 수출부문이 EU27의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가계소비와 정부소비 지출도 순조로운 증가세를 보이면서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음.
- 최근의 경기상황에 관한 각종 데이터와 설문조사에 따르면 EU와 유로지역의 경기는 여전히 양호하여 2007년에도 그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2007년 EU27의 경제성장률은 2.8~2.9%, 유로지역은 2.6~2.7%로 예상됨.
- 한편 2006년도에 호조를 보였던 EU27 경제는 기준금리 인상, 회원국들의 긴축재정정책, 유로화 강세, 세계경기의 하락세 및 유가의 고공행진 등으로 2007년 말부터는 경기확대에 제약이 점차 가해지면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2008년 EU27 경제성장률은 2.4~2.7%, 유로지역은 2.1~2.5% 정도로 2007년에 비하여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국제금융시장

- 달러화는 미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 약화에 따라 평가절상될 것으로 예상된 바 있으나 EU 및 일본의 금리인상 기조와 미국의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반적으로 평가절하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달러화가 주요국 화폐에 대해서 약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엔화에 대해서만은 강세를 보이고 있음.
- 미국의 금리인하 기조와는 반대로 하반기 이후 일본이 한 차례, 중국이 두 차례 이상의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하반기 이후 이들 통화의 환율 절상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원화 환율의 경우 서비스수지 적자 증가 및 국내의 해외투자 증가가 원화 강세를 어느 정도 억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달러화 약세에 따른 원화 절상이 엔화, 위안화에 비해 이미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임.
- 미국의 정책금리는 2004년 5월 이후 17차례에 걸친 금리인상 조치를 거쳐 2006년 6월 이래 5.25%를 유지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한 차례 인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유럽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2005년 12월 이후 모두 여덟 차례 상향 조정하여 6월 현재 4.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7년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한 차례 추가인상한 후 4.25% 수준에서 동결할 것으로 예상됨
- 일본 중앙은행은 5월 17일 금융통화정책회의를 열고 정책금리를 현행 0.5%로 동결하였으며 7월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 이후 금리 추가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임.
- 중국 인민은행은 5월 19일 경기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긴축정책의 일환으로 기준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를 각각 0.18%포인트, 0.27%포인트 인상하였으며 유동성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 중 두 차례 정도의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실행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세계의 주요국 주가는 경제가 호조를 보이는 유럽, 일본, 중국뿐만 아니라 저조한 경제 성장을 기록한 미국의 주가도 꾸준한 상승세를 시현함. 향후 세계 증시의 움직임을 결정할 주요한 요인으로는 중국의 추가 긴축, 미국경제의 성장 전망, 일본의 금리인상에 따른 엔케리 트레이드 둔화 여부 등이 있음.

통상환경

- 2007년 1월 다보스 소규모 각료회의를 계기로 본격화된 DDA 협상은 삼각 쟁점을 중심으로 주요 4개국(미국, EU, 브라질, 인도: G4)간 협상을 계속해 왔으나, 여전히 구체적인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DDA 전체 흐름을 결정할 삼각쟁점인 농업부문에서의 관세감축과 민감품목의 처리 문제, 무역을 왜곡시키는 농업보조금의 감축 수준, 그리고 비농산물의 관세감축폭 등에 대해 G4 국가간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음.
- 다만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OECD 각료회의(5월 15~16일)를 계기로 G4 통상장관들이 삼각쟁점에 대한 기존의 입장 차이를 상당히 좁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농업분야의 핵심 쟁점과 타협방향을 정리한 의장초안이 두 차례 배포되는 등 G4간 입장 절충을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DDA 급진전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 결국 DDA 협상의 최근 동향은 핵심 쟁점인 농업과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분야에서 G4간 서로의 이해를 조정해가고 있는 한편 이를 다자화시키는 과정에서 제네바 중심의 공식 협상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음.
- 향후 DDA 협상은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의 한 달간이 사실상 DDA 연내 타결을 가능할 수 있는 중요한 기간이 될 것으로 전망됨.
- 2007년 3월 현재 WTO에 통보되고 발효 중인 지역무역협정(RTA)은 총 194건으로 이 중 자유무역협정(FTA)이 11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비스협정이 44건, 개도국간 특혜협정(Preferential Arrangement)이 19건, 관세동맹(Customs Union)이 14건으로 나타남.
- 2007년 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FTA가 21건 이상에 달하며, 연내 타결을 목표로 진행 중인 FTA 협상이 26건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또한 16건 이상의 FTA 협상이 2007년 들어 이미 개시되었거나 조만간 개시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FTA 체결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FTA 체결국간의 교역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추세는 2007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 본고는 [2007년 1분기 세계경제 동향 및 전망 총괄편]이며, 각 국가별 상세한 경제전망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중국](#)

[미국](#)

[EU](#)

[통상환경](#)

[국제금융시장](#)